



지구촌 양계뉴스

중국

닭고기 가격 9.7% 급락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중국에서 지난 1일 조사된 생닭고기 평균가격이 지난달 4일 조사가격에 비해 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화사가 2일 보도했다.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닭고기 구매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9.7%의 하락률은 중국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닭고기 가격이 10%이상 하락한 곳이 중국 전체의 30%를 넘어섰으며, 특히 베이징과 안후이성에선 20% 이상 폭락했다.

가격 하락으로 양계업자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중국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리융자, 설비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아주경제

신종 AI확산, 가금업 등 경제피해 4조원 넘어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가금업을 비롯한 사료업체, 오리털 업체 등 관련 산업과 관광업까지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중국 매체 재신망(財新網)은 중국 목축업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 신종 AI의 여파로 가금류 가격이 폭락하고 판매가 정체되면서 4월 21일까지 중국 가금업계가 입은 손실액이 230억 위안(약 4조1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목축업협회 관계자는 AI 발생으로 인한 소비 급감으로 재고물량이 적체되고 있으며 갖 부화한 병아리도 폐사시키고 있다면서,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순 전국의 닭고기 평균 가격이 500g 한근에 8.86위안으로 4월 상순보다 7%, 3월보다는 4.9%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종 AI가 발생한 이후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등지에서 가금류 거래가 중단됐으며, 상하이와 난징을 비롯한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정저우(鄭州) 등지에서는 외부로부터 가금류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남방항공, 해남항공 등 일부 항공사와 육로 운수 회사들이 가금류 운송을 중단하고 나서 가금류 업계가 입는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국의 가금업계 관계자는 “가금 농가는 질병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 수익성도 낮고 관련 상업보험도 취약한 상태라 정부의 보조금이 매우 절실하다”며 “중국에는 가금 농가를 비롯한 가금 업체가 4400만여개로 업계 종사자만 1억3200명에 달해 AI가 업계에 미치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에서는 가금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보상정책을 발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시의 경우 시 당국에서 계란 생산용 닭과 고기닭을 사들여 가금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4월 12일 당일에만 상하이시 당국이 사들인 가금류가 6만485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는 가금업계 외에도 사료 업체와 오리털 업체 등 관련 업계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닭고기 판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금류 사

료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후난(湖南)성 식량·사료 업체인 완자춘미예(萬家春米業)가 생산하는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t당 100위안 가량 떨어졌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27일 보도했다.

AI의 확산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리털 패딩, 오리털 이불, 배드민턴 셔틀콕 등 중국의 오리털 제품 생산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리털 의류와 침구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상하이 동릉(東隆)의 장렌젠(張戀建) 부사장은 “AI로 인한 업계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원재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오리털이 kg당 3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가격이 두배나 뛰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관광업계도 AI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년 노동절 휴일이면 관광객으로 장사진을 이뤘던 상하이와 저장(浙江)성, 안후이(安徽)성, 푸젠(福建)성 등 화동지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최대 여행사 중 하나인 중칭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화동지역의 관광 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며 “AI확산으로 최근 들어 화동지역 관광에 대한 예약 취소가 줄어 있었다”고 밝혔다.

- 뉴스 펄-

대만

재래시장 가금류 도살
영구 금지

대만이 중국에서 확산하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가금류 도살 행위를 영구 금지하기로 했다.

행정원 산하 농업위원회(COA)는 닭, 오리 등 신종 AI를 옮기는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살행위를 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대만 중국시보를 인용해 지난 4월 17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3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당국은 정식 인가를 받은 79개 가금류 가공시설의 영업은 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농업위원회는 중국에서 H7N9형 신종 AI 바이러스 샘플을 전달받는 대로 백신 생산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7월께 신종 AI 백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철새가 남하하는 가을을 전후해 신종 AI가 중국 이남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 연합뉴스

카자흐스탄

동부에서 '닭 뉴캐슬병'
발생

닭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진 뉴캐슬병이 카자흐스탄 동부에서 발생했다고 트렌드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자흐 농림부는 동부지역 마칸치 마을의 한 농가에서 닭 몇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체를 역학 조사한 결과 뉴캐슬병으로 밝혀졌으며 철새 등 야생조류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발표했다.

당국은 질병의 추가확산을 막고자 발생지역을 격리, 방역작업을 하고 인근 지역 1천200마리의 가금류에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또 해당 지역의 철새와 야생조류를 사살키로 했다.

뉴캐슬병은 산란율 저하와 호흡기 곤란증세를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100%에 이른다.

하지만 병아리 때 기초 백신 접종과 정기적인 보강접종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전염돼 가벼운 독감증세나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 알마타=연합뉴스

EU

그리스·이탈리아 양계 위반 ECJ에 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양계 복지 규정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들 2개국에 1999년 제정된 산란용 닭의 복지에 관한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유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닭의 복지에 관한 EU 규정은 양계장의 산란용 닭이 생태 본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마리당 바닥면적을 최소 750cm²로 하고 계란함과 물통, 횃대 등을 갖추게 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2012년 1월까지 충족할 것을 명령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그리스, 이탈리아를 포함, 13개국에 양계 복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 아주경제

말레이시아

한국식 양념치킨 메뉴 인기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동남아에서 다국적 외식업체가 한식을 접목한 메뉴를 출



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코트라(KOTRA) 글로벌윈도우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KFC에서는 한국의 양념치킨에 해당하는 메뉴를 출시했다. 신메뉴명은 'Spicy Korean Crunch'.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기존 맛을 '오리지널', 한국 양념치킨 맛을 '스파이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매장에 나가보니 한국 양념치킨 맛 메뉴를 찾는 고객이 많아 신메뉴 출시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장 무난하게 즐기는 요리는 닭요리인데,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인도계나 일부 소승불교를 믿는 중국계는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나시르막 역시 코코넛 기름에 버무린 밥과 닭고기 한조각, 매운 소스인 삼발소스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점에 착안해 말레이시아 KFC가 내놓은 가장 인기 있는 점심메뉴는 'Chicken Rice Combo'로 알려져 있다. 이 메뉴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음식인 나시르막과 유사하다. 